

사회과학을 통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

(Finding Out Jeju Cultural Identity through Social Studies)

김 정 숙 *

1. 들어가며

세계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각 지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역정체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1년 12월 27일, 21세기 제주의 향방을 좌우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국제화 속에서의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 나름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제주사회의 기본 성격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정체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섬, 화산지형, 기후 조건 등 제주의 자연환경은 제주의 삶을 규정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에 의한 주변성, 토지의 척박성은 개체성과 공동체意識, 균분상속제, 열등의식, 근검절약의 자세, 평등한 사회구조 등과 고리를 이루며 제주의 고유성을 만들어 왔다.

모든 문화의 심층엔 태고의 신화가 잠들어 있다. 그러나 특수한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궁극적인 인간 경험의 오래된 유형으로서의 신화는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라는 철학체계가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철저하게 폄하되었다. 이미지와 그 의미에 대한 신화적 지식들은 증명, 증거, 관찰의 지식과 논리에 밀려 홀대되어 왔다. 이성, 실증, 법칙과 이론, 논리에 경도되어 있는 많은 지식인들은 여전히 신화연구를 통하여 어떤 언표와

* 새화고등학교 교사

규칙을 얘기하는 것을 비논리적이며 우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물 혹은 대상의 실증성, 합리적 추론, 기계적인 역사적 사건들만을 신성시하는 합리주의, 실증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중층적인 세계와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인간의 역사가 ‘이성적 인간, 진보의 역사’ 라는 믿음대로 작동되지 않았음도 물론이다. 우리가 믿었던 합리적인 이성의 힘이 인간이 지향하는 진보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었다면 세계대전의 천박한 욕망, 인종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 등의 그토록 비참한 일들이 이처럼 활개를 치며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그에 의한 진보를 꿈꾸는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훔쳐온 벌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게 되듯 인간 이성의 절대적인 신비화는 인간의 간을 망치는 절대적인 피로와 영양의 불균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은 1시간 웃으면 24시간 면역력이 확보된다고 하며 ‘우울과 행복’ 까지 계산해내고 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인간에게 주어진, 보이는 세계와 드러나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앞으로써 가능한 일일 것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을 아는 동시에 그 사람의 친절하지만 고집스럽기도 한 주관적인 특징을 안다는 것이다. 인과과정에 결속된 물리적인 365일을 살아온 것 이상으로, 종잡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어떤 순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일 수 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신화는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세계, 상상력의 세계, 정신 현상의 세계를 설명해 준다. 이런 점에서 신화의 세계, 상상력의 세계는 인간과 사회현상의 분석과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고리들을 잡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학과 신화가 대립적인 지점에 놓여진 것만은 아니다. 이미 신화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의 기체들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기체들과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과학은 신화의 가장 큰 생성 주체가 되어 왔다. 세계 각 민족이 아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펜식기(구석기)를 사용하고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의 발생은 삶과 같이하는, 인류가 가지는 보편성이다.

경험과 상상력들이 그들이 획득한 과학적 단초들과 결합하면서 펜식기, 간석기를 사용하게 하고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점점 농경생활로 옮겨가게 했듯 신화 역시 이런저런 과학적 단초들과 상상력의 결합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게 신화는 기획된 환상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의 기체들 속

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런 기체들의 하나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유기체적 실체이다.

아날학파의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역사를 정치적 사건 같은 짧은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역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경기변동과 같은 중기지속의 역사,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기후나 지리 등의 자연적 조건과 그것에 의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이나 의식구조 같은 장기 지속의 역사로 구분한다.

그는 사회나 문화의 연구들이 '장기 지속 기간'보다 '단기 지속 기간'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지속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논쟁 등은 전면적으로 부각되지만 그런 경향들 혹은 그 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일상의 구조와 같은, 그 근본에 있어 거의 불변하는 장기지속의 흐름과 경향이라고 한다. 결국 그는 장기 지속의 역사, 즉 거의 변하지 않는 기후나 지리 등 자연적 조건과 그것에 의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 의식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역사가 구조와 규칙성이라는 틀을 가지고 제대로 온 종합, 전체의 의미심장한 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화에 대한 연구, 신화의 원형에 대한 연구는 브로델이 지향하는 연구의 하나일 것이다. 기후나 지리 등 자연적 조건과 함께 형성된,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지형에서 가장 밑바닥, 응이 집단무의식이라 부른, 신화와 신화적 사유들은 브로델이 말한 장기지속의 역사인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인간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신화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제대로 온 종합, 의미심장한 틀이 될 수 있다.

신화는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 개별적·집단적으로 여러 맥락과 조응하면서 로고스와 접합되고 그러면서 또 각각의 다른 체험을 만들어 낸다. 해당 구성원의 정신적 뿌리로서의 신화적 사유는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체험이며, 통시적이고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신화는 '시간'과 '공간'에 특수하게, 개체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기도 하다. 사실 신화는 이러한 여러 맥락 속에서 그에 조응하며 형성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화를 참다운 의미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라는 서사문학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노엄 촘스키가 말했듯 모든 형태적 구조의

총체들 뒤안에, 서로 상이하고 철저히 불가지론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토대가 존재한다면, 신화는 바로 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는 마치 헤파이트스가 바람난 아프로디테를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하여 쳐 든, 보이지 않는 청동 그물처럼 사회를 훨씬 더 본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미망인 것이다.

2. 사회과의 중요한 교육적 소재: “신화”

- 신화는 제주사회의 타임캡슐이다.

어떤 지역이든 고유한 지역성(지역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은 지리적 환경이 서로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지며 인간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환경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신화란 어디서나 그 지리적 환경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법이다. 제주도는 바람 많고 돌 많은 화산섬이다. 제주도의 신화들은 이런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제주도라는 사회의 특정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사적인 문화 산물이 된다.

물론 신화는 종교적 문헌이나 단순한 미적, 문학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된다. 이는 신화에 대한 이해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 신화는 해당사회의 조건하에서 특정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드러내는 그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며 또 새로운 문화의 생산자이기도 하다.

<대영박물관>에 있는 꿈의 해몽에 관한 파피루스를 보면 ‘커다란 고양이’를 꿈에서 보는 것은 ‘대풍작’을 의미하며, 이 두 어구는 매우 유사한 음소와 음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고양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왕 옆에 세워두는 이집트인들의 고양이 숭배와 그런 숭배를 만들어내었던 자연적인 조건과 그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 이집트의 자연환경, 그들의 삶과 언어체계, 그들의 집단의식이 고양이 숭배의 의미망 속에 촘촘히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그들의 종교 또는 신화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아 가는 과정일 수 있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무한한 열림의 어휘일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전 국토가 만신전萬神殿이라 할만큼 신으로 가득 찬 나라이다. 그 중 제주도는 1만 8천 신이 있다고 하여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섬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신화'하면 대뜸 그리스 로마신화를 떠올린다. 여신 아테나나 비너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성들의 화장품, 의약품, 가게의 상호, 그 모든 것들에 서구 신들의 이름이 애용되고 의식,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삶에 호명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시키고 자랑한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이미지로 또 실재로,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구현하는 존재가 된다. 예술가들은 신들의 조각상을 세우고 시인은 시로써 찬미하며 소설과 영화의 주요한 모티프로도 사용된다.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삶의 위안과 예지를 얻기도 하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재구성의 과정, 해석과 가치창조의 과정과 성과가 일천한 우리에게서 헬레니즘의 오랜 역사 속에 탄생된 비너스나 아테나의 세련된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가 문자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만으로 미화되어 사랑과 전쟁의 로망스로 귀결되어 버렸다면, 제주 신화는 사회맥락적, 현실개혁적인 시대정신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제주 신화는 형상적 표현이나 이미지의 성취에서는 빈약하지만 삶의 제반조건에서 만들어낸 구조와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볼 때 무척 가치로운 점이 있다. 그리스 신화처럼 개인의 감성이나 본능을 다루고 있기보다는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이나 개인과 사회의 긴장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신화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어서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서 신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현실을 비집고 그 속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신화 속의 행태나 캐릭터들은 충분히 사회적 속성을 표현하고 또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제주 신화는 문자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만으로 미화되어 그 본래적 의의를 상실해버린 그리스 신화나 또는 지배논리 속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일련의 신화들과는 입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도 신화의 본질적인 속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또 제주 신화들은 굿이라는 의식 속에 구승되면서 전래된 것들이어서,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에 의하여 또는 문학적 요소들에 의해 마음껏 가미되거나 망실되어 온 그리스 신화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변화될 수 없는 집단적인 창작 전승물들이다. 따라서 제주 신화는 현실과 밀착된 신화라는 점에서, 또 개인의 의지나 기호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 함부로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와 집단을 반영하는 정직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도 한다.

즉 제주 신화는 우리 민족 또는 제주에서 보유했던 집단과 지역의 고유함이나 신화의 본질적인 의의를 잘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신화라는 것이 가시적인 세계의 배후, 지역에 현현된 정체성을 설명하는 메타포로서 사회현상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면, 제주 신화는 여기에 가장 합당한 경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하나의 신화는 역사가 그러하듯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주어진 역사에서 현재와 대화하는 역사적 담론들이 역사가 되고 있듯, 신화는 대상들에 대해 세심하게 대화하면서 존재했던 그들의 세계와 현재가 서로 대화하는, 현재를 위한 역사로서, 확장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때 좀더 의미있을 수 있다.

제주의 신화는 제주사회의 타입캡슐이다. 결국 우리는 독특한 환경 아래 구성된 제주 신화들을 통하여 강인하고 부지런하며 무뚝뚝하다는 제주 여성들의 특성에서부터, 균분상속제나 분가주의적 가족 형태, 자연적 측면에서의 공동체적 생활방식 혹은 공동체 의식, 집단 내혼의 풍습, 겹부조의 관습,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 부부 중심의 가족 형태, 여성들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참여와 그로 인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높은 이혼률, 상대적인 딸 선호의 사상뿐만 아니라 안팎거리의 가옥구조, 친구간의 풍습, 애기구덕, 할망바당, 조냥정신, 갈옷 등 제주도의 여러 습속들과 심성들을 읽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과 탐구 영역의 기본적인이것도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화는 사회과의 중요한 교육적 소재의 하나로 손색이 없다.

1)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 - 생산형태를 따라가는 당

문화는 '인간화된 자연', 즉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표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자연환경 역시 제주도의 문화를 읽어내는 가장 중심적이고 기

본적인 단초가 된다. 제주도의 정체성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인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은 보다 직접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는 환해의 화산섬이다. 한라산은 바다에서부터 완만한 평원을 만들어 내면서 높이 솟아 있다. 이러한 환경은 농경문화와 수렵문화 그리고 해양문화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하였다. 즉, 지리적으로 볼 때 산간에는 반농반수렵이, 중산간에는 반농반목축이 그리고 해안에는 반농반어업의 생산형태를 이루게 했다.

생산형태는 이런 자연환경을 연속적으로 반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생산형태는 신의 직능별 그리고 당의 공간적 분포와도 일치하여 나타난다. 즉 제주도의 산간·중산간마을은→반농반수렵, 반농반목축의 생산형태에→산신과 농경신의 직능을 가진 신들이 분포하고, 해안마을은→반농반어업→해신과 농경신이 분포한다.

2) 척박한 '뜨땅'에 사는 사람들 - 신들의 고향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특히 성행한 지역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이 성행한 것은 그 자연적 환경 조건에 의한 생활고에도 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이다. 그리고 곳곳에는 화산암반의 노두가 나와 있어 경지를 잘게 나누어 버리고, 또 토양 속에는 화산암설들이 들어 있다. 제주 사람들이 '뜨땅'이라 부르는, 함수율이 낮은 이 화산회토는 척박함의 상징이고 생산력이 논농사에 비해 낮은 밭농사를 하게 했다. 척박한 화산회토에서의 밭농사는 다량의 거름을 생산, 시비하게 했고, 고온다습의 기후로 더욱 빨리 성장하는 잡초와 싸우게 했다. 인구부양력이 낮은 밭농사와 빈번한 자연재해, 섬이라는 조건 속에서 부(富)에 대한 기본적 추구는 제주도의 자연적 조건에 맞는 수렵, 목축과 어업의 성행을 가져왔다. 한편 많은 자연재해는 곡식의 수확에 지장을 주었고 수확에 대한 이런 불안은 해산물의 채취와 판매를 위해서, 위험한 바다를 생활무대로 삼게 했다.

이런 불리한 자연환경을 제주인들은 '통시' 구조를 이용한 거름의 생산이라는 리사이클링의 지혜, 덕판배를 만드는 과학성, 개인들의 역척같은 부지런함

과 절약정신과 도전성 그리고 공동체의식과 함께, 신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제주도에 무속신앙이 성행한 것은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정신의 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도시를 보호하고 상업을 관장하고 포도를 잘 영글게 하는 이리저리한 인간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로마의 다신교의 형태로 나타났듯이 척박한 자연환경과 고단한 삶을 극복하려는 과정의 한 편에서 제주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다에 나간 남편이 무사하기를, 조를 잘 말리고 타작할 수 있기를, 풍수해로 곡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많은 신들에게 빌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제주는 ‘신들의 고향,’ 무속신앙이 특히 성행한 지역이 되었다. 제주도에 산육 치병신이 많은 것도 제주도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지질,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풍토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의술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없는 섬이라는 지역적 사정으로 인해 주술에 의한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들랭이’, 소규모의 밭농사 지역- 마을 공동체(본향당)가 중심인 생활

제주도의 신앙은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마을당(본향당) 신앙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사당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한반도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다.

한반도부의 논농사 중심의 생산형태는 토지의 확보가 고착화되면서,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혈족내의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다른 혈족과의 물꼬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족장이 중심이 되는 혈연공동체로서의 속성을 강하게 띠게 하였다. 이는 민족, 종족, 부락 중심의 공동체의식을 사라지게 하였고 대신 기득적인 유리한 위치를 보전하는 혈통선별 체제, 즉 반상의 구별, 서자의 차별 등과 함께 가족, 가문, 혈족 등의 배타적인 일족신의 신앙인 사당을 성행하게 했다.

반면 제주의 밭농사는 논농사 지역과는 달리 경작지가 한 마을 안에서도 땅의 상태, 용암반의 분포 및 혼합도, 고도 등에 따라 진압, 제초, 파종하는 시기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조건에 딱 맞는 때에, 노동력을 서로 수눌어 가며 처리해야 했다. 척박한 조건에서 자립은 필수적이었고 이 자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눌음과 같은 강한 공동체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한라산 무주공야의 용암평원은 노력만 하면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어 빈부의 차를 크지 않게 하였고 공동체 내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 물꼬싸움을 위한 일족중심의 강한 결속력이나 대규모의 배타적인 노동력 역시도 필요하지 않았다. 분산된 토지에 적응하는 삶은 개체적인 태도를 가지게 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는 장남분가제도나 부부중심의 가족제도, 균분상속제, 겹부조의 풍습, 안팎거리 가옥구조와 같은 고유한 문화속속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제주는 여성에 대한 대우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빈부의 차도 적고 사회적인 위계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평등한 지역이다. 우선 조각조각 나누어진 소규모의 토지들이 그에 기여했다. 돌랭이는 부의 축적이나 확장의 여지를 줄였다. 척박한 토양은 여성들까지 생산에 부지런히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확보될 수 있었다. 관직에의 기회는 극소수였고 농사나 사냥, 물질의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은 '돌랭이'라는 소규모의 척박한 밭을 소유하여 열심히 갈아먹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란 것은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과 공정의 분위기는 제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다. 소규모에다 척박하고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뜰밭의 밭은 결국 개체주의와 평등의식, 부지런함, 여권의 신장을 선물해 주었다.

물론 이런 점은 신들의 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모든 신들은 마을의 본향당 신으로 추앙되며 많은 신들은 어느 한 신에게 예속되어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신들로 구분하는 일은 없다. 상하의 엄격한 위계질서도, 남신이 숭상되는 경향도 없다.

제주 신화에는 '아들 간 데 18, 딸 간 데 28, 손자 간 데 378'이라 하여 '가지가름', 즉 마을의 설촌과 분리 및 확산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아들과 딸, 심지어는 손자까지도 각 마을의 모든 사상을 관장하는 당신으로 좌정하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평등했던 제주의 의식과 구조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아들과 딸, 손자들은 차별되지 않는다. 장자 상속의 의미도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들은 수평적 평등이동을 한다. 제주도의 경우, 앞서서도 보았지만 정착농경사회에 접어들고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본향당은 마을의 중심이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곳의 당신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누구나 평등하게 제의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의 수호신으로 활발하게 신앙시

되었다.

4) 덩구는 사과와 계란껍질들 - 민중의 삶, 일상과 함께 하는 신들

제주의 신격은 신비한 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후광을 그 표상에 도입하거나, 팔이 여럿이거나, 온 몸이 눈으로 뒤덮이거나, 머리가 여러 개인 신의 모습이 아니다. 또 지배, 지혜, 복수, 관능, 질투 등의 개념을 신에게 부여하여 인간의 모든 심성들이 찬양되고, 극적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신과 같은 동일함을 얻으려 했던 그리스와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늘 경외되는 대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많은 신들은 대표할 신격이 있지도 않다.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상으로 조각된 경우도 많지 않다.

마을에 있는 나무, 큰 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바위가 신이 되었다. 나무를 신의 몸으로 알고 거기에 물색을 걸어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생각을 했고 지전과 소지를 걸어 풍요로운 농사를 빌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바로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 신들은 굳이 나라를 건국하지 않아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지 않아도 또 지혜롭지 않아도 신이 될 수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 오지도 않는다. 알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땅에서 솟아난다. 이런 것은 제주의 신들이 마로 일반 민중들의 삶 그 자체를 표현하고 일상적인 삶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올해의 입춘날에도 여전히 송당에서는 하루 종일 굿을 했다. 아이들은 신이 모셔진 당 입구에 모여 공을 차고 있고 한 구석에는 점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자신의 마을을 떠나 있던 사람들까지도 마을의 당(본향당)에 모여 기도틀 하고 애기꽃을 피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

당에 가보면 지전과 고운 물색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싱싱한 사과가 텅굴고 있고 누가 아파서 다녀갔는지 계란 껍질이 흩어져 있다. 제주에는 고온다습한 풍토적 영향으로 피부병이 많았고 이 때마다 사람들은 당에 가서 계란을 올리고 기원을 했었다. 살이 미끈한 계란처럼 탐스럽고 매끈한 피부가 되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피부병의 치병신에게 올린 제물이었다. 채우스에게, 일본 천황의 직계로 인식되는 천조대신에게, 인도의 시바신에게, 알라신에게 이 21세기의 오늘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의 신들은 언제나 아주 가까이 있다.

5) “할망당에 간다” - 여신 중심적인 신앙

제주 사람들은 ‘할망당에 간다’고 하며 큰 구덕(바구니)에 제물을 담고 당으로 향한다. 이가 암시하듯이 제주의 신앙 대상의 신은, 성별로 구분해 볼 때 여신의 비중이 특별히 높다. 또한 그 내용이 무척 여신 중심적이다.

제주도 무속신화는 유독 여성신들의 출생담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초공, 이공, 세경, 칠성 본풀이는 신화의 서두가 부유한 집안의 부부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차치성을 드리고 자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되고 이 때 태어나는 아이는 대체로 딸아이가 나타난다는 제주도 신화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늙도록 아이를 못 낳아도 시련과 고통 속에 칠겨지악으로 쫓겨나지 않으며, 태어난 아이는 딸아이가, 섭섭하다기보다는 예쁜 아이로 소중하게 묘사되어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임정국대감 부부는 태어난 딸이 앞이마는 해님이요 뒤통수는 달님이요, 두 어깨에는 샛별이 오송송 박혀진 예쁜 아이라고 좋아한다. 때는 구시월이라 산 줄기줄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아이 이름을 <저 산 줄이 뽕고 이 산 줄이 뽕어 왕대 월석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맹왕 아기씨>라고 길다랗게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여신의 출생을 반기고 무속 속에서 여신의 비중과 역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도 제주도의 환경과 결부지어 중요한 하나의 맥을 찾아낼 수 있다.

제주도는 ‘여다의 섬’으로 불려진다. 이것은 제주가 주었던 이미지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실제 여성의 수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척박한 뜰땅의 제주도는 밭농사의 생산형태를 가지게 했다. 밭농사의 주요 노동인 김매기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알맞은 노동이다. 또한 해산물 채취를 위한 수중 잠수도 여성들이 맡아 했다. 반농반어의 성격을 가진 마을에서 여성들은 물때를 따라 바다로, 밭으로, 집으로 왔다갔다해야 했다.

여신이 많고 여신 중심적이 되는 신앙은 제주 사회 내부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생산 참여를 통한 여성들의 실제적인 경제력의 획득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점이 신앙에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신들은 설촌과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많은 자녀의 양육 및 독립 등의 가

족 관계, 마을의 확산 및 분리 등의 면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오히려 더욱 중요한 존재로 표상되기도 한다.

6)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금기를 어기는 여신 아이콘

제주 신화에서 제주의 농경신은 여신이며 본향당신인 경우가 많고 이 여신은 돈육금기를 지키는 맑고 고운 정결한 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신화 속의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는 계기는 육식금기를 어겨서이다. 즉 신화에서 보면 주로 해안마을의 여신들이 이 돈육금기를 어겨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의 갈등이며, 농경과 어업간 생산형태의 갈등,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간의 갈등인 동시에 유교중심의 문화와 무속중심 문화간의 갈등,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여성중심적인 문화의 갈등, 양반, 지주와 상업민, 해민간의 갈등, 기득권 위주주의와 개혁적 민중의식의 갈등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농경사회로 가는 제주에서 돼지는 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동물이었다. 특히 척박한 제주의 토양에서 양질의 비료는 절실하였다. 돼지는 ‘통시’(화장실)의 구조를 통하여, 척박한 땅을 위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지꺼기(음식, 인분)를 처리하고 또 식용으로까지 이용되었다. 인분과 잡초들은 이 돼지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해 훌륭한 거름이 되어 척박한 땅을 살려냈던 것이다. 중산간이나 해안이나 모두 수렵목축과 농업, 어업과 농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름을 만드는 돼지는 중요했다. 그러나 해안마을은 해산물은 다른 다양한 생필품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까지 공급해주는 돼지를 먹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서 점점 먹지 말아야 하고 먹어도 되는 차이가 생겨나고 이것이 <중산간 옷드르지역/수렵목축 및 농업지역/양반, 보수적 유교문화>와, <해안 알뜨르지역/어업지역/천민, 진취적 해양문화>가 대립하는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돼지의 육식금기는 서로를 구분하고 자신들만의 내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아이콘이 된다.

결국 이 육식금지라는 화소는 마을의 분리와 갈등, 생산형태 및 문화간, 마을 사람들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계기가 여성, 편견이나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

러운 여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함목적적으로 형성되었던 습속들이 무조건적으로 굳어지면서 악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그녀들은 쉽게 매몰되지 않는다. 자신의 본성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삶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모습들에서 제주 신화는 무척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7)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분산 합시다” - 이혼을 요구하는 사회

신화에서 보면 여신들이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 분산을 요구한다. 이 신화의 모티프는, 여성 소유권에 대한 제주도의 획기적인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제주 신화 속의 남신과 여신의 갈등은 생활 자체에서 시작된다. 땅에서 솟아난 남신과 외지에서 종자 등을 가지고 들어와 결혼한 이들 부부신의 결혼생활은 조용한 결혼이 아니다. 참으로 시끄럽다. 그들은 자주 갈등을 빚는데 그 갈등들은 그리스 여신 헤라의 질투와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지에 관련된 갈등, 혼란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부부는 식성의 차이, 주로 밭을 갈 때 이용할 소를 먹어버리거나 또는 너무나 식성이 좋아서, 특히 여신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되어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여 다른 곳으로 좌정해서 산다. 육식의 남신은 수렵문화를, 미식의 여신은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의 별거 또는 이혼은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병존의 요구,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서 농경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의 과정에 당연히 노정되는 두 문화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밭을 갈아야 할 소를 잡아먹거나, 당시 거름을 공급하는 돼지를 먹어버리는 것은 농경문화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육식금기를 어겨서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는 모티프는 마을의 형성에 이어 마을의 분리 및 확산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마을의 형성 및 분포와 관련되어 부여받은 여신들의 중요한 역할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땅 가르고 물 갈라’ 달라고 자기의 몫을 배당 받으면서 살림분산을 요구하는 여신들, 여성들의 당당한 지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그리스나 한반도 전역의 정서 내지 삶의 방식과는 판이한 것이다. 제우스의 여성들은 제우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간택되어 진다. 그의 아내 헤라는 질투

의 여신이다. 한반도지역의 아내들이, 감히 남편과의 습속의 차이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참으면서, 예쁘게 살았는데도 칠거지악과 같은 규제로 보따리 하나 덜렁 문밖에 내던져지고 쫓겨나야만 했던 모습과도 사뭇 다르다. 살림분산의 와중에도 ‘땅가르고 물갈라’ 줄 것을 요구하는 제주사회 인간관계의 모습들, 여성의 높은 지위는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8) 여성의 치마 속을 따라 다니는 뱀- 여성 중심의 사회

제주에는 한반도부에서 산신으로서의 호랑이신앙이 강한데 비하여 제주에는 호랑이에 대한 신앙이 전연 없다. 그 대신 곡물의 신, 재복의 신으로서 뱀신앙이 강하고, 이 뱀신앙은 모계계승형식으로 매우 강하게 터부시되고 있다.

제주도의 뱀신은 여신이다. 이 뱀신은 산신이나, 농경치병신, 해신이 각각 그에 적합한 공간적 분포를 이루고 있음에 반하여, 여계를 따라 전도적으로 분포한다. 즉 이 뱀신은 딸에서 딸로, 즉 모계 계승의 형식으로 모셔져가는 신이며, 잘 모시지 않았을 경우 재앙신적 성격이 짙다. 당 이외에도 집안의 고평에는 안칠성을, 뒷뜰에는 밧(뽕)칠성을 각각 곡신과 부신으로 모시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독특한 모습들은, 제주도 여성의 높은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지위, 처우를 읽을 수 있는 코드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장은 제주도의 기후가 고온다습하여 뱀이 많은 조건인데다가 땅 속에 사는 두려움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이 뱀신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척박함이 절약정신(조낭정신)의 필요성을 만들어 내었고, 곡식을 축내는 쥐의 천적인 뱀을, 재복을 가져다주는 가신으로 삼는 것은, 농경문화권의 보편화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뱀이 여성을 상징하고 풍요의 곡신과 부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 모성의 원리 및 기능에 맞닿아 있는 영원한 순환이나, 불멸의 상징이라는 점, 이에 제주 지역적인 것으로서 여계를 따라서 분포한다는 점, 집안의 고평이나 뒷뜰 등 주로 여성들의 전유공간에 모시는 점, 제주도의 경우 여성들의 노동 참여와 그들에 의한 부의 생산이 크다는 점, 여성들을 중심으로 무속신앙이 성행했다는 점, 잘 모시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신앙시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뱀이 가진 여러 상징성과 함께, 제주 여성의 고유한 존재성과 힘에 대한 강조

가 뱀신앙으로 맞물리면서 현실 속에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뱀신앙은 그 생김새의 흉물스러움과 이브를 유혹한 뱀의 이미지가 현대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면서 그 다양한 의미들이 상실되고 왜곡되어졌다. 여성의 치마폭을 따라다닌다 하여, 특히 뱀신앙이 각별했던 제주의 김녕이나 토산의 여성들이 결혼할 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서구적인 의식에 경도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와 습속들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화는 그 사회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메타언어이기도 하다. 기존의 환경들에 대한 해석과 창조로 신화는 발생하며 그 신화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서의 문화가 창조되어 간다. 신화가 집단의 의식, 무의식의 표현이라는 점은 물론 타당하지만 제주도의 경우처럼 당의 위치나 당신의 기능, 성격이 자연 환경적인 조건,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사회구조를 함목적적으로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서의 역할, 민중의 의식구조 등에 구체성을 띠는 형태로 상호 반영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신화를 통해 본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 백주또 신화(송당 본향 당본풀이)의 재해석과 적용

1) <백주또 신화>

한라산에서 솟아나 사냥을 하면서 사는 알송당 소천국은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외지에서 입도한 백주또와 결혼한다. 백주또와 소천국은 천정배필을 맺고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손자가 378명이 나 되게 번성한다.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니 백주또는 걱정이 되었다.

“남인남아 남인남아 이렇게 늘면 어찌 삼니까? 이 아기들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농사를 지으십시오.”

농사를 짓자고 권하는 백주또의 말에 솔깃한 소천국은 백주또가 싸주는 점심을 들고 밭을 갈러 갔다.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이 요기를 청하자 소천국은 그에게 자기가 먹을 점심을 주어버린다. 허기가 진 소천국은 결국 밭을 갈아야 할 소를 잡아먹고서는 한 마리로는 조금 모자란 듯하여 옆 밭에 있던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 버린다.

백주또가 그릇을 가지러 밭에 가보니 어인 일인지 남편이 배로 밭을 갈고 있었다.

“아니, 소는 어디 두고 배때기(배)로 밭을 잡니까?”

소천국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를 잡아먹는 것은 예상 있는 일이지만 남의 소를 잡아먹었으니 소도독놈 말도독놈 아닙니까?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합시다.”

백주또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은 남편에게 결국 살림분산을 제안했다. 살림을 분산하고서 알송당에 좌정한 소천국은 자신이 본래부터 잘했던 사냥을 하며 살았다. 옷송당에 좌정한 백주또는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세 살이 되니 아버지나 찾아주려고 소천국을 찾아가다. 세 살 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뽑고 가슴을 때리면서 어리광을 부린다. 그런데 소천국은 이런 아들에게 불효한다 하여 무쇠석갑에 담아 동해 바다에 띄워버린다. 무쇠석갑은 물 위에도 연삼년, 물 아래에도 연삼년 떠다니다가 용왕황제국에 들어가 산호수 가지에 걸렸다. 무쇠석갑에서 밤에는 초롱불이 등성하고 낮에는 글 읽는 소리가 등성하여 용왕황제는 막내딸을 시켜 무쇠석갑을 열게 하였더니 도령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결국 막내딸과 천정배필을 맺게 된 이 사위는 소도 전술 마리 닭도 전술 마리를 먹어대어 점점 용궁의 창고가 비어지게 되었다. 황제는 하는 수 없이 막내딸아기에게 말을 건넸다.

“이거 안 되겠다. 너로 해서 얻은 근심이니 네 남편을 데려서 나가거라.”

용왕의 막내딸아기는 남편에게 말을 시켰다.

“남인남아, 남인남아, 아버지에게 가서 무쇠 바가지 하나, 무쇠 방석 하나, 금동 바가지 하나, 상마루에 매어 둔 비루 오른 망아지 하나 주면 이 용왕국을 나가겠다고 이르십시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다시 무쇠석갑에 담겨진다. 마침내 강남천자국에 떠오른 부부는 때마침 일어난 큰 난을 바다에서 얻어 온 비루 오른 망아지를 타고, 천 리에 번쩍 만 리에 번쩍하며 난을 평정해 놓았다. 강남천자는 큰 상을 내리려 하였으나 거절하고 제주땅으로 들어왔다. 제주땅에 들어와 부모님을 찾으니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네 살 곳으로 가서 좌정하라 하였다.

2) 재해석과 적용

당본풀이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송당본풀이를 비롯한 신화들은 수렵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과정 즉 농경 정착사회를 건설하여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설촌의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주민의 이상, 수렵과 농경이라는 생활양식간의 갈등이라는 이야기의 열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성들의 생산경제로의 직접참여를 통한 부와 실질적 지위의 획득, 모든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분가시키는 제주의 부부중심 소규모 가족제도, 이와 맞물린 제주인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자립적 개체성, 평등성, 근검절약의 조

낭정신과 경제적 정의와 같은 공동체의식 등이 촘촘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신화에서 여신들은 농경과 관련되는 지식과 종자 등을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이 여신들은 지금까지의 수렵문화 중심의 생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농경사회의 질서 그 자체였다. 여신들이 들어오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정착생활이 이루어지면서 농경사회라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마치 갓 결혼한 일상 부부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마주하게 된다. 즉 농경사회의 문화는 기존의 토착적인 수렵문화와 병존해야 하면서 동시에 끝없이 갈등하게 하는 새로운 질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부부가 엮어내야 하는 질서였다.

백주또는 아들 열 여덟, 딸 스물 여덟, 옷 달라 밥 달라 조르는 많은 이 아이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수렵을 접고 농경을 해야한다고 권유하고 농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생활 속에서 여성이 가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현실적인 창조력과 미래에의 헤안 등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코드이다.

백주또가 삶의 원칙으로 삼은 것은 공동체의식이다. 신화에서 남편에게 “소를 잡아먹는 일이야 예사이지만 남의 소를 잡아먹다니, 소도독놈 말도독놈 아닙니까? 살림 분산합시다.”라고 요구하듯, 백주또 여성은 자기 남편으로서의 개인적 정분보다는 사회 경제의 정의와 도리를 중시한다. 이는 제주의 공동체의식을 말해준다.

그녀는 본질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사회를 배반하지 않는다. 많은 식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소였지만 자기의 소를 잡아먹은 것이라면 예사로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의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일은 아무리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지만 용서할 수가 없다. 내 가정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훔쳐 오라 내물기도 하는 세상에, 백주또에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이혼을 결정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제주에서 과거에 가장 심한 욕은 ‘말도독놈, 쇠도독놈’ 이었다.

이런 점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엄격하고 자기 남편에게 엄격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공정성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화나게도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의 움직임마저도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는 제주 여성을 향하여,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딱 좋다. 또 친구와 다투고 들어오면 우선은 자기가 욕을 먹어야 하는 자녀들

은 이 백주또 어머니를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닐 거라고 울먹거리기도 할 것이다. 이는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철저한 제주의 그녀들이 만들어 낸 특성이다.

자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이 그녀를 지배하는 특성 중에 대표적인 하나이다. 자유와 평등, 집단적인 조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그녀에게는 기꺼이 우선된다.

가족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런 태도는 자기이해와 관련된 개인적 관계보다는 대 사회적 관계들에 중심을 두는 자세이다. 너무나도 척박한 땅에 가난하기만 한 상황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부지런함이 필수였고 도둑질할 잉여 분이 창고에 비축되지도 못했던 제주의 환경은 거지없고 도둑없고 대문없는 제주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송당의 당신인 백주또는 모성적이면서도 자립적이고 개체적인 제주 어머니들의 원형이다. 그녀는 실천력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 모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관대하며 이타적이고 고집스러운 만큼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고 타인에게는 여유롭다. 생활은 규칙적이며 아주 부지런하다. 남편도 없이 혼자 몸으로 아들 18, 딸 28, 손자 378을 키울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게 여길 법도 한데 그녀는 남편에게 살림을 가르자고 제안한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부지런함과 그것을 기초로 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주또에게는 신뢰로 이루어진 계약, 공동체, 가족, 마을의 통합을 위한 가치들이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의 가치에 앞서 선택된다. 이 초연함으로 인해 그녀는 타인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객관적인 여성이라는 평가를, 가족에게는 완고하고 정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칙에 강하고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은 살아가면서 전개되는 사건들에 의해 쉽게 사기가 고양되지도, 또 비참해지지도 않는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나 성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백주또 여성은 남편만 밭에 보내지 않는다. 밭으로 나가라고 남편을 채근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벌써 혼자 밭에 나가 있다. 자신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 역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남편이 밭에 나오지 않으면 밭에 나오지 못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책임하게, 게을러서 밭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다. 힘들고 피곤하다는 소리도 없다. 밤이 되어 들어와 정다운 말이나 웃음을 건네지도 않고, 지친 표정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다. 이런 점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긴장시키기도 하는데 오래 지나서 무덤덤해지게 되면 정다운 대화나 활기를 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액자 속의 정물화처럼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백주또 여성의 장점은 자립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데 있다.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지위에 대한 철저한 역할수행은 너무나 완고하다. 남편 역시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몫을 남에게 밀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부로서의 그녀는 가정 생활을 운택하게 해야 할 필요와 의무를 자식들을 통하여 느낀다. 집안의 경제는 남편과 동시에 책임지려 한다. 오히려 마음 속으로는 남편보다 그런 책임감이 더 강하다.

별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백주또 여성을 간단히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밭에 나가 일하며, 며느리가 지어주는 밥을 먹지 않고 따로 밥을 해먹기를 고수하는 많은 제주 어머니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 백주또 여성은 설령 혼자이고 가난하더라도 묵묵하고 떳떳하게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며 자녀들은 인간적인 원칙들에 충실한 이 막강한 어머니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을 것이다. 백주또 여성은 아이들의 성공이 무척 자랑스럽지만 칭찬너스레를 떨면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여전히 묵묵하게 일할 것이다. 성공을 이룬 능력 있는 자녀들은 이것이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 하고, 어머니는 너희들이 부족한 어미를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준 덕분이라고 서로에게 한 두 번쯤은 얘기할 것이다.

가난한데다 고온다습하고 바람이 강한 제주도의 기후 조건은 가옥의 규모를 적게 해야 할 필요를 주어 한마당 안에 있으면서도 안채와 바깥채(안거리와 밖거리), 외양간이 서로 분리된 다동분립형의 가옥 배치를 하게 하였다. 이런 가옥의 구조는 제주도의 분산된 경지와 밭농사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부부중심의 개체적 생활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부모와 자녀세대들은 한마당 안에 같이 살면서도 따로 살아간다. 부모님은 안거리에 살고 밖거리에는 아들이 산다. 그러다가 아들의 식구가 좀더 넓은 집을 요구할 정도로 늘어나면 아들에게 안거리를 양보하고 노인들은 안거리보다

조금 평수가 적은 밖거리로 옮긴다.

제주의 이 안팎거리 가옥구조는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린 아이에게 한마당 안에 두 채의 집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채를 마주 보게 그릴 것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제주도의 안거리와 밖거리는 등을 보이며 돌아서 있는 경우가 있다. 밖거리 즉 아들집의 엉덩이가, 안거리 즉 부모집 얼굴로 향해있는 셈인데 이는 유교식 질서가 팽배한 분위기에서는 애당초 상상이 불가능한 가옥의 구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지은 까닭은 너무도 명백하다. 바람을 막거나 습도 조절 또는 채광을 위해 안거리를 남향으로 지어야 했다면 밖거리 역시도 남향으로 지어야 할 터였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 또는 주인과 하인과 같은 종속관계의 의식을 지양한 제주 사람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인간적인 선택을 내린다면 합리적이거나 지혜롭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런 가옥의 구조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어떤 권위적인 요구도 없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또 적당한 시점에서 안채를 며느리에게 내어 주고 자신은 바깥채로 옮겨가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닌 많은 백주또 시어머니들에게 며느리들은 '시' 자가 들어갔다고 시금치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녀들은 의무감이나 위선적인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효가 아니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식들의 친효를 이끌어내는, 거역할 수 없는 지혜로움과 모성을 가지고 있다. 도리와 애정으로서의 효도는 종속적 부모자식 관계를 극복한, 개체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올 때 진실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세대는 '따로' 또 '같이' 산다.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면서 부모님의 상황을 살핀다. 아침밥도 따로 먹고 부모와 자식은 각각 자신의 발로 간다. 창고의 열쇠도 각자이다. 노인이 된 부모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발을 택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한 발에 나가 일을 한다. 이 '따로 또 같이'의 생활체제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압박감을 줄이고 고부간의 갈등을 줄여 주었다. 아들과 부모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 의지한다. 서로를 억압하고 간섭하지도 않는다. 한마당에 같이 살면서도 따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에서 부모들은 권위적인 질서를 내세우거나 봉양받는 것을 다소 포기하는 대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늘 보호받고 외

로움을 달랠 수 있는 진실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제주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아들 며느리가 너무 바쁘면 오히려 부모님이 바깥채에서 식사나 가사 일을 맡아 주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했고 ‘안 쓰는 게 버는 것’이라는 검소한 생활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손자 손녀들의 진학이나 결혼과 같은 큰 일에 입학금이나 이불값 등,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생활의 경험이 적어 당황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같이 살면서 ‘할망 손이 약손’이 되어 경험이 없는 며느리의 육아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다. 오늘날도 제주의 어머니들은 푸성귀 한 장이라도 가져다주 시려 하지, 부모라 해서 당연히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부간은 사실 심리적, 감정적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불편한 관계다. 이런 고부가 좁은 집에 같이 동거함으로써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침범 당하기 때문에 서로 더욱 불편해지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보통은 여러 조건에 의해서 서로 별거함으로써 고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지만 노인들의 외로움과 보호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녀인 젊은이들의 당연한 과제라면 제주의 ‘따로 또 같이’의 가족구조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노인들에게는 경제력과 보호의 구조를, 젊은이들에게는 독립과 보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런 가족구조는 그 물리적인 가족의 패턴에 대해서도, 현대라는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조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관계와 관습이 요구하는 것들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삶의 개체성과 삶의 상호부조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백주또 여성은 사려 깊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표현에 인색하다. 그녀는 마치 아버지 같은 어머니이다.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지만, 자기 자식만 최고라고 여기거나 효도라는 보상을 원하지도 않는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늙어서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추구하며 자식의 삶에 의존하기 싫어하는 백주또 여성들의 모습은 노후의 모습이나 고부간의 갈등, 효에 대한 바람직한 시사점들을 보여준다.

인간사인 까닭에 아이러니하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너무 부지런한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상대를 의존적이게 하고 게으르게 하며 책임에 소원하

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미래를 항상 대비하는 절약과 부지런함을 지혜롭게 실천해내는 백주또 여성의 어떤 남편들은 무책임하기도 하다. 항상 여분의 해결방책들을 감쪽같이 준비하는 든든한 그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가정의 책임져야 할 상당부분을 이 부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책임감을 핑계로 뒷전에 밀어놓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생활력 강한 아내들이 오늘날도 씩씩하게 집을 지켜 주고 있는 제주의 남편들은 사실 가정경제의 일방적인 책임감에서 많이 놓여나 있다.

백주또의 인간적 도리와 부지런함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무책임한 남편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상대의 여성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그녀는 힘들다고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남편의 무능력함에 질타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녀의 철저한 자립성은 남편이 누구든 거의 상관없다는 독립적인 자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처음에는 그녀만의 독특하고 안정된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무심하고 무책임해져 갈 수 있다. 또 자신 역시 점점 남편을 무시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는 그녀의 가치를 없애 버리는 비본질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여성에게서 애교스러운 여성의 매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애정의 표현에도 인색하다. 말과 행동이 간소하여 비판 한마디에, 칭찬 하나에도 비중이 실린다. 이들은 과묵하나 한마디 말과 행동의 묘를 알고 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세사에 둔하지 않은 인간적 성숙을 보이는 까닭에 수려한 위엄을 보여준다. 그러나 백주또 여성의 이런 완고함은 포용력이 없이 자기 고집만 센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녀의 진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더 값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풍부하게 느낌으로써 더욱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게 살 수 있는 면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를 무조건 믿어 주고 안아 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다.

그녀가 가지는 의미 있는 삶의 자세는 친밀한 말들, 유머와 애교, 웃음을 통해서 실어 나를 수 있을 때 더욱 의미있게 확산될 수도 있다. 이 여성에게는 웃고 울며 껴안고 수다를 떠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주의 문화는 사실 제주 여성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제주

도를 지탱해 온 것은 남성들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자손들을 먹이고 입히려 긴긴 하루 머리 수건 한번 벗지 못한 채 살아 온 제주의 어머니들, 백주또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샘에 가서 식수를 떠서 물허벅에 지고 나르는 일, 애기구덕에 애기를 눕히고 똥이자랑 노래를 부르면서 잡초를 매는 일, 바다에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하며 미역이며 전복을 따오는 일, 밥을 지으면서 조냥의 쌀독을 마련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했다. 궂은 일,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좀더 유용하고 편안하게, 좀더 많은 가치를 확보하면서, 좀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녀들은 치마를 입고 품을 져 틈도 없이 도맡아 했다. 바로 그것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목소리가 높으며 부지런하고 도전적인 여성성, 안팎거리의 가옥구조, 수눌음과 같은 협업체계, 갈중이, 애기구덕, 조냥 정신, 할망바당과 같은 제주의 문화이다.

4. 21세기 제주의 문화정체성 교육

- 제주 신화의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은 태초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자신 이외의 타자들에게 가졌던 끊임없는 관심들, 이해하고 예측하고 싸우고 조화시키며 절망하고 희망해 나갔던 모습들을 빌려와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신화를 만들었던 태초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세계의 모든 타자들과 조심스러운 상호작용을 나누면서 희망의 노래를 꿈꾸어야 하는 것이다.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신화의 탄생이 그렇듯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교감을 나눈다는 것이다. 태초의 사람들이 그랬듯 자기동일성 즉 정체성을 위해서 이타성異他性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공존을 꾀하는 것이다.

신화를 통하여 정체성 교육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이타성異他性을 받아들이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이성, 실증, 법칙과 이론, 논리, 증명, 증거, 관찰의 지식과 삼단논법의 논리만을 신성시해 왔고 이미지와 그 의미에 대한 신화적 지식, 감성과 상상력은 철저히 폄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적 인간, 진보의 역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을 설명하

는 데도 역부족일 뿐이었다.

현 사회에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여러 덕목들을 제주 신화들은 많이 갖추고 있다. 밭농사를 하게 한 척박한 뜬땅,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던 빈약한 생산성, 분산된 소유와 평등하고 개체적인 삶을 만들어 준 조각조각난 토지들, 내가 서기 위해서는 협업을 꼭 요구했던 농사일들이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개체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생산과 분배체계를 그리고 소비의 측면에서 좀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여성의 권리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제주의 고유성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척박한 조건과 이에 적절히 대응한 제주 사람들은 개화와 문명이란 개념 내에 자라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지배적인 논리와 같은 비인간적인 성향들을 제어하면서 평등하면서도 자유롭고, 개체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성숙한 사회의 담론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했다. 불리한 자연환경은 오히려 '미개발의 발전', 즉 에코 디마크러시, 에코 페미니즘이라 할 만한, 근대를 뛰어넘는 물질, 정신적 가치들을 오래 전부터 제주에 퍼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감각(feeling), 여성(female), 상상력(fiction)의 3F시대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적지 않다. 감각과 상상력의 산실은 신화다. 또한 오랜 시절동안 쓸데없는 낭비를 만들어 왔던 가부장제의 폐해 속에서, 여성성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볼 때도 제주 신화에는 대부분의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성 지배-여성 순종이라는 단정적인 질서나 악태에 대한 위반과 전복의 행위들이 심심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더군다나 그 반전들이 개인의 본능적인 욕망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인간의 규칙들을 어기지 않는 반전들이란 점에서 무척 가치롭다. 오히려 남녀, 더 나아가 인간 평등의 모습들이 신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추구하고 실천이 제주라는 사회 집단 내에 오래도록 내재되어온 역사적인 정신성임을 확인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따로 또 같이'의 제주 신화는, 21세기 제주의 문화정체성 교육은 제주 신화의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 하면 어떻겠냐는, 참으로 흡족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나를 계속 나이게끔 하는 특성'인 정체성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타자와 관련되는 경우이다. 제주 신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타자와의 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과 공동체, 여성과 남성, 어른과 아이, 고부간, 형

제간 그 모든 '차이'의 의미가 가지는 이타성異他性을 제대로 유통시키면서, 차이를 통해 자신만을 분류 특화시키거나 또는 배제 차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공정한 타자로 인식하는 제주 신화의 모습은 진정한 정체성 교육이 가야 할 길을 이미, 더군다나 재미있고 풍부한 이야기 거리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 세계 지역과 각 단위 지역, 과거와 현재,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의미심장하게 존재하는 타자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개개의 개체성을 기반으로 할 때 확실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시민사회, 성숙함의 공리는 완고한 규정과 금지가 아닌, 교양 있는 개체적인 판단들이 억압됨이 없이 모여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형성될 수 있을 때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옛 이야기에서 확인한다.

5. 나오며

신화는 현재 제주 지역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제반 가치, 정서, 생활태도 및 생활 양식 등의 원류이다. 그러므로 신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성의 원류를 이해한다는 것이며 신화의 탐구는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개체성의 확립에 공동체의식이 필수적이었던 제주 사람들의 환경은 개체성과 공동체의식을 공히 추구해 나갔으며 이런 점은 신화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신화를 통한 사회과 교육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현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주 신화에 녹아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영역에 속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민주적 보편 가치를 다룸으로써 좀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시에 신화를 통한 사회과 교육은 문화간 이해를 위한 교육,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교육, 세계적인 시각 혹은 관점에 대한 교육, 세계적인 체제나 문제, 이슈에 대한 교육 등 광범위한 교육도 포함시킬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넘어가야 할 자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논란 역시도 신화의 본질적 속성인 이타성의 재고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신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적 자질, 세계시민교육, 각 나라의 민주시민교육과 전통문화의 보호와 애국심, 애乡심을 포함하는 각 단위 지역의식간의 갈등을 서로를 해치지 않고 발전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인식을 하게 도와준다. 인류의 보편적이면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신화의 이해는 그야말로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의 상대주의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한 사례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

제주 신화를 통한 사회과 교육은 그 자체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해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촌적 관점을 반영하는 데까지 비판적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없다. 방대한 해석을 요하는 신화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또는 자연 과학의 지식과 개념, 법칙들과의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학습자 자신에게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훈련시키게 함은 물론이다.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어떤 수준에서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설교적이거나 설명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교과서와 학생, 교사는 정지되고 격리된 상태이며 움직이지 않는다.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경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예견도 불가능하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왜소하다.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모두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지식의 포화상태, 지식간의 불연계성, 또 삶과의 불연계성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의 방대함 앞에서 이미 진이 빠져 버린다. 논리적 연계성을 기본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지식들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원리를 갖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다. 또 실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간 이후, 아니 인간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인간만의 감각, 지혜들은 모두 죽어 버리고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저항 없이 매장되어 버리고 있다. 이것이 교육을 통해 교육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그 본질을 잃고 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적성, 소질이 더욱 발현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던 명제적 지식중심의 객관적인 지식체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인의 특수한 경험, 상황, 환경에서 간주관적이고 구성적으로 나와지는 방법적 지식, 탐구적 지식, 실천적 지식 등이 중요해지고 있고 나아가 개인의 인지구조와 경험을 존중하는 개성적인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속의 제주를 위한 사회과 교육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제주신화

를 체험적으로 느끼고 개별학습자가 내면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 신화 교육을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교육은 개별학습의 인지구조에 부응하는 구성주의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사회과의 수업들은 사회과의 특성상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사회와의 밀접한 관련성때문에 무척 흥미로울 수 있다. 좋은 사회과 수업을 꿈꾸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많다.

몇몇의 주관적인 주장들에 의해서도 발전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삶들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인간, 그들의 상호연관성에서 배워 왔다. 여러 분야의 주장들이 이 글과 만나면서 매력적인 사회과 교육이 되게 하는 한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송성대(1996).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 파피루스.
- 문부령(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 (1998).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 (1980). 『제주도무속 자료사전』. 신구문화사.
- 장주근(1998).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 진 시노다 불린.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조주현·조명덕 옮김(1992).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 유승희 옮김(1994).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김정숙(2002).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도서출판 각.
- 고성준·강봉수(2002. 6).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주도 연구』 제21집. 사단법인 제주학회.